

중앙아시아의 민족분쟁: 1990년 6월 키르기스스탄 오쉬(Osh) 사태의 그림자

- Valery Tishkov. 1995. "Don't Kill Me, I'm a Kyrgyz!":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Violence in the Osh Ethnic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2(2), 133-149.
- Matteo Fumagalli. 2007. "Framing Ethnic Minority Mobilisation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Uzbeks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59(4), 567-590.
- Pål Kolstø. 2008. "Nationalism, Ethnic Conflict, and Job Competition: Non-Russian Collective Action in the USSR under Perestroika." *Nations and Nationalism* 14(1), 151-169.

김태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I. 들어가며

민족분쟁은 민족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분쟁이 아니다. 민족은 분쟁의 기표(記標)이자 분쟁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는 통로다. 이러한 점은 1990년 6월 키르기스스탄 오쉬 지역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간에 발생한 대규모 유혈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에트연방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붕괴되어 가던 세계적 변화의 시점에 중앙아시아 내륙 산악 지역에 위치한 구 소비에트공화국 키르기스스탄, 그것도 그 변방 지대에서 일어났던 이 분쟁을 분석한 연구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이 사건을 다루더라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글은 이처럼 널리 주목받지 못한 이 사태에서도 다양한 조건과 요인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복잡한 사회적 과정과 관계를 거쳐 영향과 여파를 남기는 민족분쟁의 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각기 다른 세 논문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오쉬 분쟁의 분석에만 온전하게 집중하는 사례연구이고, 두

번째 논문은 민족분쟁의 기억이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며, 세 번째 논문은 서로 다른 두 직업 경쟁의 양상에 의해 민족 갈등이 서로 다른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으로 민족분쟁의 유형화·일반화를 시도한다.

한편, 세 논문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민족분쟁을 설명하거나 민족분쟁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하는 입장과는 거리를 둔다. 첫 번째 논문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모델이 구소련의 민족 갈등을 연구하는 데 그다지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학적 분석과 대조되는 미시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Tishkov, 1995: 133, 135), 두 번째 논문은 구조적 요인이 민족 동원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원 과정 내에서의 변화 혹은 동원 과정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Fumagalli, 2007: 569-570). 세 번째 논문 역시 구조적 요인이 민족에 기반한 집단행동의 차이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구조가 직접 민족 동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의 인식과 결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다(Kolsto, 2008: 167).

II. 오쉬 분쟁 개요

오쉬 주(州)는 키르기스스탄의 7개 주 가운데 남서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한 주이며, 그 주도(州都)인 오쉬 시(市)는 수도 비슈케크(Bishkek) 다음으로 큰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산업 도시다. 분쟁이 일어날 무렵 130만 명의 오쉬 주 인구에서 압도적 다수(60%)를 이루는 민족 집단은 키르기스인이었고 우즈베크인의 비율은 26%였지만, 오쉬 시 인구에서는 우즈베크인(46%)이 키르기스인(2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더해 우즈베크인은 오쉬 시 상업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키르기스인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Tishkov, 1995: 134; Huskey, 1997a: 661). 다시 말하면, 오쉬 지역 인구의 다수는 키르기스인이었지만, 이들은 주로 농촌이나 산간 등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였고, 도시 지역에서는 우즈베크인이 인구나 경제 면에서 우위를 점함에 따라 키르기스

인의 불만이 일정 정도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오쉬 지역 우즈베크 주민들이나 그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자신들의 인구적·경제적 비중에 비해 정치적 대표성이 미미한 것에 대해¹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심지어는 지역 내 우즈베크 자치 지역 설립이라는 보다 급진적인 요구를 제기하기도 하였다(Huskey, 1997b: 252). 우즈베크인은 전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단일 민족 집단으로는 가장 인구 수가 많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도 명목 민족 다음으로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절대 수에 있어서는 무시될 수 있는 소수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는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민족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이 오쉬 지역에는 이미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간의 민족적 긴장 관계가 잠재되어 있었다. 여기에 소비에트 말기에 이룰수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토지, 주택, 직업 등 경제적 자원을 놓고 두 민족 집단 간의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KIS, 2011: 10).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5월 키르기스 민족주의 단체 ‘오쉬 아이마기(Osh Aimagy, 오쉬 토지 혹은 지역)’가 주로 우즈베크인이 거주하던 집단농장의 토지를 키르기스인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 당국이 이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자 이는 우즈베크인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두 민족 집단 간 대규모 유혈충돌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다(Huskey, 1997a: 662; KIS, 2011: 10). 분쟁의 피해자에는 키르기스인과 러시아인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우즈베크인이었다는 점에서(Tishkov, 1995: 134-135) 갈등의 구도는 가해자-키르기스인 대 피해자-우즈베크인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6월 초 단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분쟁은 살인뿐만 아니라 폭행, 강간, 약탈 등 3,000건이 넘는 범죄 행위를 수반하였다(KIS, 2011: 10). 격렬했던 유혈충돌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소비에트군 병력 투입 이후에야 중단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¹ 오쉬 지역 공산당 조직에서 25명의 지구 및 시 당 제1서기 가운데 우즈베크인은 단 1명이었다. 또한 지역 소비에트에서 키르기스인은 고위직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우즈베크인의 비율은 4.7%에 지나지 않았다(Huskey, 1997a: 661-662).

이 분쟁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적·정치적 조화’에 관한 이미지가 깨졌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Huskey, 1997b: 252).

III. 티쉬코프(Tishkov): 민족 간 폭력의 발생에 대한 미시적·인류학적 분석

티쉬코프의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분석 자료 및 방법이다. 저자는 46명의 키르기스인에게 집행유예부터 18년형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키르기스스탄 대법원과 오쉬 시법원의 형사 재판 기록 중 일부를 이용하여(Tishkov, 1995: 135) 분쟁의 공간과 시간, 가해자와 피해자, 폭력의 동기와 기제 등 행위의 지역적 맥락을 미시적 수준에서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분쟁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 문화의 영향, 심리적 요인 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을 갖기도 하지만 일정한 한계 또한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대규모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도시 외곽의 평야 및 산기슭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 간 갈등의 성격과 형태가 유사하다고 전제하지만(Tishkov, 1995: 136), 이용 가능한 자료가 제한됨으로 인해 저자의 연구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던 민족 간 인구 비율 및 경제 활동의 양상이 분쟁에 미친 영향과, 저자도 인정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분쟁 규모의 차이를 야기한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다. 이는 미시적 분석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 누락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연구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한편으로는 인물 연구의 방법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갈등은 “개별적인 민족적 폭력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민족적 폭력은 “특정 개인이 행하는 개인적인 폭력 행위들의 총합에 다름아니”라는 관점에서(Tishkov, 1995: 139, 144) 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방식을 채택한다. 연구의 목적이 폭력을 실천한 이들의 심리적 동기나 집단행동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접근법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

만 오쉬 분쟁을 포함하여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행위자나 행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행위자의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때로는 선택 그 자체를 강제하기도 하는 구조적 차원의 요인들도 작용하는 법이다. 따라서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권력 관계, 체제나 제도 등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작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 저자의 행위자 요인에 대한 강조는,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분쟁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연구보다는 개인 혹은 심리 환원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재한다.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수행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아래로부터의(bottom-up) 관찰”(Tishkov, 1995: 148)은, 일반적인 분쟁 및 폭력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특히 구 소비에트 민족분쟁에 대해서도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발생의 동인과 기제에 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 준다. 여러 법정 증언과 법원의 견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오쉬 지역 민족 갈등 분출과정의 특징은 우즈베크인이 키르기스인의 공격을 무서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인 역시 우즈베크인이 이미 저질렀다고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한 학살을 두려워했고, 이러한 공포에 기초한 소문 혹은 신화의 전파가 폭력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Tishkov, 1995: 145-147). 피해자 집단에게서는 물론 가해자 집단에게서도 폭력에 대한 공포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빚어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공포가 상대 집단에 대한 집단 폭력으로 표출되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 중의 하나는 소문과 신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혹은 상상된 현실에 대한 인식의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논의는 저자의 오쉬 분쟁 사례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분쟁과 폭력에 관한 일반론적인 시사점이다.

또한 저자는 분쟁 시 키르기스인들이 보인 비합리적인 심리와 반응을 설명할 때 “집단사고(groupthink)” 및 “사회적 편집증(social paranoia)” 개념을 원용한다. 이때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비에트 교육의 영향으로 내면화된 민족에 관한 소비에트적인 신념이 대중의 이러한 집단적·편집증적 인식과 행동의 기저에서 작동했다는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키르기스 민족은 고대로부터 존재해 오고 있고, 키르기스 민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민족국가 영토에 살고 있으며,

공화국, 자원, 국가, 제도 등은 키르기스 민족의 소유라는 굳건한 믿음이 키르기스인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키르기스인의 사회적 편집증이 발현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러한 민족에 관한 신화적 사고의 작용이 놓여 있었다(Tishkov, 1995: 146-147). 이처럼 민족이라는 범주의 집단이 토지와 자원 등을 독점할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는 소비에트적인 민족에 관한 인식은 비단 구소련 말기 키르기스인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났던 것이 아니다. 1920년대에 이미 다른 중앙아시아 주민들도 민족 범주 및 수사를 빠르게 수용·내면화하여 이에 기반한 청원과 불만을 중앙권력에 제기함으로써 국경의 재획정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었다(Hirsch, 2000: 213-224). 또한 이러한 민족 중심적 혹은 민족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은 현재까지도 여러 다른 구 소비에트 민족들이 주변의 현실과 타자를 이해하고 판단할 때 그 준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지적인 소비에트식 본질주의적 민족 관념의 영향은 포스트소비에트 민족 관계의 전개, 민족 갈등의 발생 요인 혹은 배경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효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IV. 푸마갈리(Fumagalli): 프레임의 작용에 의한 민족의 동원과 탈동원

푸마갈리 논문의 초점은 1990년 키르기스스탄 오쉬 분쟁 및 1992~1997년 타지키스탄 내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에서 우즈베크인 공동체의 민족 동원 혹은 민족주의 움직임이 예상과는 달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즉, 저자는 티쉬코프처럼 오쉬 지역 민족 갈등을 유일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민족 간 폭력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지만 저자의 연구는 민족 충돌에 관한 기억과 담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형성했고, 그 프레임이 두 중앙아시아 국가의 우즈베크 민족 집단이 동원 혹은 탈동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민족분쟁으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던 민족 관계의 진행 및 변화에서 인지와 해석의 틀, 즉 프레임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킨다. 이때 프레임이란 “사건이나 현상을 의미화하고 그림으로써 경험을 조직하고 행동의 지침을 내리는 기능을 하는” “행동 지향적 신념 체계”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Benford and Snow, 2000: 614),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논의된다.

티쉬코프의 인류학적 미시 연구에서도 그러했지만, 푸마갈리의 사회학적 프레임 분석에서도 연구방법은 오쉬 분쟁의 특성과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점을 갖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저자는 2003년과 2005년 여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각각 60명과 30명의 우즈베크인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면접을, 136명과 137명의 우즈베크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해 두 국가의 우즈베크 민족 집단에서 표출된 여러 프레임 유형들을 살펴본다(Fumagalli, 2007: 577).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키르기스스탄의 우즈베크인 공동체에서 대체로 지배적인 유형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호출되고 이용된 갈등의 기억은 바로 1990년 오쉬 분쟁에 관한 기억이었다. 이것이 방법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분쟁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분쟁에 관한 기억의 내용이나 그 기억과 경험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활자화된 문서나 기록의 검색·조사가 아니라 대면 접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가 현지 조사, 인터뷰 설계, 설문지 구조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훼손·왜곡 같은 얻어진 자료의 부정확성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연구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쉬 사태가 전개되던 시기에 주로 이용된 통신수단에서 찾을 수 있다. 분쟁 당시 오쉬 지역의 TV 및 라디오 보급률이나 정기 간행물 구독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법정 진술에서 대중매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일터나 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충돌에 관한 소식 혹은 소문을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후에야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Tishkov, 1995: 144-146). 즉, 오쉬 분쟁 시 집단폭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과거의 충돌 기억이 어떻게 프레임화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도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중앙아시아 및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여러 다른 민족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일정 정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민족 집단의 동원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억압이나 제도화된 통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하활동을 전개하거나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분쟁의 당사자들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려 할 때 문서화된 자료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측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저자의 주요 이론적 논점 중 하나는 프레임은 관계성을 갖는 것이어서 동일한 프레임이 동일한 민족 집단을 동원하는 이념(mobilising idea)으로도, 탈동원하는 이념(demobilising idea)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Fumagalli, 2007: 571, 587-588). 대표적인 예로서 키르기스스탄의 우즈베크인들 사이에서 1990년 오쉬 분쟁의 기억은 좌절과 불만보다는 갈등의 재현에 대한 두려움을 낳았고, 이에 따라 이들은 민족주의적 지도자가 아닌 안정된 민족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 즉 당시 재임 중이던 아카예프(Askar Akaev) 전(前)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는 온건한 프레임에 폭넓은 공명을 보였다. 이 경우에는 분쟁의 기억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안정 지향적 프레임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이념으로 기능한 것이다. 동시에 분쟁의 기억으로부터 발원하여 안정적인 민족 관계를 희구하는 이 프레임은 우즈베크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크 문제'를 제기하거나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탈동원의 이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Fumagalli, 2007: 578-580).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레임 분석이 민족분쟁의 직접적인 원인, 결과, 특성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기억이 대중 사이에서 수용·가공·소환되는 동태적 과정과 방식,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의 작용, 프레임을 구성하는 엘리트와 이에 호응하는 혹은 이를 거부하는 대중의 상호관계 등 민족분쟁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이 효과적인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티쉬코프와 푸마갈리의 연구는 상이한 학문적 배경, 대상과 방법, 논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도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인 점은 다른 시기의 다른 현상에 대해서이기는 하지만 두 저자 모두 소비에트 민족의식의 영향과 그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쉬코프는 구소련 말기 오쉬 분쟁이 발발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적인 민족 개념이 그 동력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 푸마갈리는 포스트소비에트 민족정체성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식의 민족에 대한 이해가 그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키르기스스탄에서나 타지키스탄에서 다수의 우즈베크인들은 자신들이 소수민족 혹은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영토, 자원, 특권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역사적 민족 혹은 토착 민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선호하는데, 이는 소수성이나 반체제성처럼 소비에트 시기에 소수민족이나 디아스포라에게서 연상되던 의미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Fumagalli, 2007: 580-582).

V. 콜스토(Kolstø): 직업 경쟁의 양상에 따른 민족 갈등의 유형화

소비에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민족 문제를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정체성이 강조되는 데 반해 사회경제적 경쟁 혹은 이해관계가 보다 설명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Kolstø, 2008: 152) 출발하는 콜스토는 매우 단순명료한 주장을 개진한다. 인구의 증가는 대중적 차원에서의 직업 경쟁을 낳고, 이는 종종 대중소요의 형태를 띠는 비정치적인 민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교육의 증가는 엘리트 차원에서의 직업 경쟁을 낳고,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민족 갈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면서 저자는 오쉬 사태를 포함하여 소비에트 말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민족분쟁을 전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해석한다. 즉, 구소련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구소련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노동생산성과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의 노동집약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차원에서의 직업 경쟁 및 실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점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전후한 시기 이 지역에서 폭동의 형태로 분출된 민족 갈등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Kolstø, 2008: 158-159). 저자에 따르면, 이 시기 각 민족공화국에서 명목 민족

언어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언어법이 제정되었는데, 구소련 서부에 위치한 공화국들에서와 달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행정이나 교육 부문 등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인 및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남겨놓은 화이트칼라 직업을 둘러싼 민족 간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Kolsto, 2008: 163).

한편 저자는 중앙아시아와 대조적인 유형의 민족 갈등이 나타난 지역으로 발트 공화국들을 비롯한 구 소비에트 서부 공화국들의 사례를 예시한다. 즉, 이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엘리트 직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명목 민족 구성원들이 고위직이나 요직에서 우위를 점하기에 유리하도록 언어법의 요건과 시행이 더욱 엄격해지거나 배타적인 국적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민족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실행한 결과라는 것이다(Kolsto, 2008: 164-166).

저자의 주장이 두 가지 직업 경쟁의 양상을 중심으로 대단히 많은 민족 갈등의 사례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일반화한 만큼 저자의 논의에서 이들 사례들과 다양한 정도로 관련되는 여러 다른 정황이나 요인이 간과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판과 반론 또한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중에게나 엘리트에게도 보편적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해관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직업을 놓고 벌어진 경쟁을 민족 갈등의 동인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저자의 접근법은 기존의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기도 하지만, 왜 다른 아닌 바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전후한 시기에 들어서야 이러한 직업 경쟁의 양상이 민족 갈등의 유형을 결정지은 주요인으로 대두되었는지 그 구조적·시대적 맥락이나 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또한 저자는 민족 갈등을 주로 분노에 의해 추동되는 대중 차원의 민족 폭동(ethnic riots)과 정치적 목표나 의제를 추구하는 엘리트 혹은 인텔리 차원의 민족주의 운동으로 구분하지만, 이러한 민족 갈등의 이분법적 분류가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제기될 수 있다. 오쉬 분쟁 시 키르기스 및 우즈베크 민족주의 단체들이 사태의 준비나 전개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

지만, 주민들을 선동하고 격양시키는 데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태가 끝난 뒤에는 해산·금지되었다는 점이 보여주듯이(Fumagalli, 2007: 572, 577), 엘리트 혹은 인텔리가 주도하는 운동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대중 소요·폭력의 단초 혹은 빌미가 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서로 다른 두 기제에 의해 발생하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민족 갈등을 구별함으로써 민족 갈등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간주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다소 인위적인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두 가지 형태의 민족 갈등이 중첩되거나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 자신도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해명하지는 못한, 현실과 인식 간의 괴리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아시아 및 여타 포스트소비에트 민족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된다. 1992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 라트비아에서 고등교육 혹은 중등전문교육을 받은 이들 가운데 자신의 교육 수준에 상응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러시아인은 20%였던 데 비해, 그러한 라트비아인은 6%에 불과했다. 이처럼 높은 교육 수준과 직업 수준이 일정 정도 불일치했다는 점은 화이트칼라 직업 경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말해주지만, 이 경쟁에서 공화국 명목 민족인 에스닉(ethnic) 라트비아인이 더 불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 정치 엘리트들은 라트비아 농업 종사자의 71.5%가 라트비아인이었던 데 반해, 리가 행정기구 남성 직원 중에서는 라트비아인이 17.3%에 불과했다는 1989년 인구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라트비아인이 러시아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Kolsto, 2008: 162-163).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라트비아에서 엘리트 차원의 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과정에 동력을 공급한 요인은,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엘리트 직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엘리트 직업 경력을 쌓을 기회가 차단된 현실에 대한 불만이었다기보다는 치열해졌다고 여겨진 직업 경쟁과 이로 인해 생겨났다고 여겨진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점이다. 직업 경쟁으로 민족 갈등을 설명하는 저자의 단순한 논의의 구도로는 이처럼 엘리트 차원에서든 아니면 대중적 차원에서든 실제로 직업 경쟁이 심화되어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위험이 실재했는지의 여부보다, 엘리트나 대중이 직업 경쟁의 격화로 인해 차별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민족에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민족 갈등을 낳은 보다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현실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어느 한쪽 면만을 강조하면 이는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현실을 축소 혹은 단순화, 심지어는 왜곡하여 이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 현실 혹은 이에 부합하는 인식보다도 이러한 부정확한 혹은 일면적인 현실 인식이 중대한 사회적 변화나 움직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오쉬 분쟁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및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민족분쟁에도 해당될 수 있다.

VI.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세 논문은 큰 틀에서는 중앙아시아 민족분쟁과 관련되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논지를 피력하는 글들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공통된 주장을 도출하기는 힘들지만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민족분쟁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소비에트 말기에도 그러했지만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 지 20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소비에트 민족의식이 사람들의 내면에 내린 뿌리는 매우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민족들 간의 관계나 그것이 악화된 형태로서 나타나는 민족분쟁이 형성·전개되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 개념은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이후인 비교적 늦은 시기에야 비로소 이식·정립되기 시작했고, 이때 민족은 근대적 혹은 진보적 역사 발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의 공동체 유형으로 도입·인식되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견고하게 각인되어 있다.

푸마갈리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민족을 중심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사고가 언제나 민족분쟁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민족을 매개로 하여 표현되거나 작용하는 여러 사회정치적 조건과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가 쉽다는 것이며, 콜스토의 연구는 이처럼 실제 현실에 부합하

지 않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으로 설명되는 현실의 변화가 결합하면 민족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중아시아 및 포스트소비에트 민족 관계나 민족분쟁의 이해에 있어서 사람들의 소비에트식 민족 관념이 구조적·제도적 조건, 정치적 과정 혹은 변동,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 등과 상호작용하는 양상과 그 영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투고일: 2014년 4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19일

참고문헌

- Benford, Robert D. and David A.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11-639.
- Fumagalli, Matteo. 2007. "Framing Ethnic Minority Mobilisation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Uzbeks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59(4), 567-590.
- Hirsch, Francine. 2000. "Toward an Empire of Nations: Border-Making and the Formation of Soviet National Identities." *The Russian Review* 59(2), 201-226.
- Huskey, Eugene. 1997a. "Kyrgyzstan: The Politics of Demographic and Economic Frustration." In Ian Bremmer and Ray Taras, ed.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654-6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b. "Kyrgyzstan: The Fate of Political Liberalization."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 ed. *Conflict, Cleavage, and Chang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242-2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S (Kyrgyzstan Inquiry Commission). 2011.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Events in Southern Kyrgyzstan in June 2010."
- Kolstø, Pål. 2008. "Nationalism, Ethnic Conflict, and Job Competition: Non-Russian Collective Action in the USSR under Perestroika." *Nations and Nationalism*

14(1), 151-169.

Tishkov, Valery. 1995. "Don't Kill Me, I'm a Kyrgyz!":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Violence in the Osh Ethnic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2(2), 133-149.